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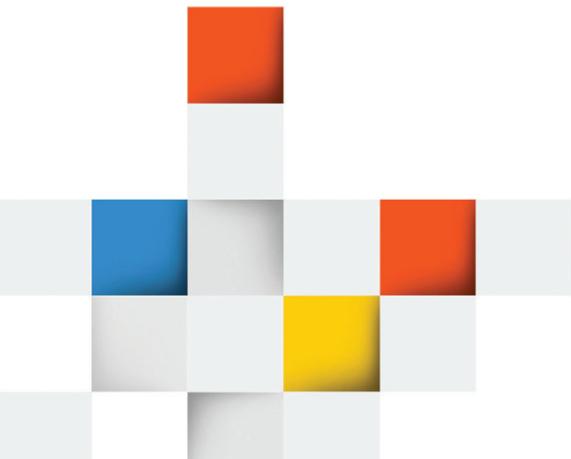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 코로나19와 초·중등교육

김경근 (고려대학교)

-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온라인 개학 이전에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주로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하는 원격수업이 진행됐다.
-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뒤에도 초등학교에서는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이 대세였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이 기존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보다 많았다.
- 원격수업의 문제점으로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보았다.
- 등교 개학 후에 초등학교는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방식'을 주로 선택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같은 반 학생이 모두 학교에 와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 한국은 디지털 기기 활용에 필요한 기술적, 교육적 역량을 갖춘 교사의 비율이 높지만, 교육현장에서 기술보조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미증유의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충격과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인류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오롯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초래한 변화는 심대하며, 교육 영역도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교육에 커다란 균열을 가져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확산하자 당초 3월 2일 예정이던 개학일을 세 차례에 걸쳐 연기한 끝에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학을 더 연기할 경우 학습결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4월 9일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의 온라인 개학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의 온라인 개학이 마쳐 이루어졌다.

온라인 개학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등교 개학이 추진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개학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재확산하자 5월 20일로 고등학교 3학년 등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하였다. 이에 맞추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은 5월 27일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4학년은 6월 3일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6학년은 6월 8일

로 등교 개학 일정이 조정됐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국의 초·중등교육에서 2020년 상반기에 전개된 일들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이 2020년 4월에 경기도 관내 초·중·고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학급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자료와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 6월에 초·중·고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sup>1)</sup>

경기도는 도농 지역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초등학생의 28.0%, 중학생의 27.3% 및 고등학생의 25.8%가 경기도 소재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는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대표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집단이라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온라인 개학 전의 원격수업 방식은 어떠한지, 온라인 개학 후에는 수업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등교 개학 후에 나타난 변화의 면면도 살펴보고자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 관점에서 한국의 온라인교육 준비 정도도 점검하고자 한다.

### 온라인 개학 전 원격수업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확산하면서 3월 2일 개학은 세 차례에 걸쳐 연기되어 4월 9일에야 고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많은 교사가 원격수업을 실시했지만, 어떠한 형태의 원격수업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그림 IV-12]는 온라인 개학 전에 원격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준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한 원격수업이 대세였는데, 이러한 원격수업 방식을 채택한 비율은 초등학교(59.6%)가 중학교(46.1%)나 고등학교(40.8%)보다 훨씬 높았다.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한 원격수업 다음으로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초등학교 29.6%, 중학교 29.0%, 고등학교 26.7%로 교육단계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한 비율은 초등학교 3.0%, 중학교 15.4%, 고등학교 19.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어떠한 형태의 원격수업도 하지 않은 비율도 초등학교 7.8%, 중학교 9.6%,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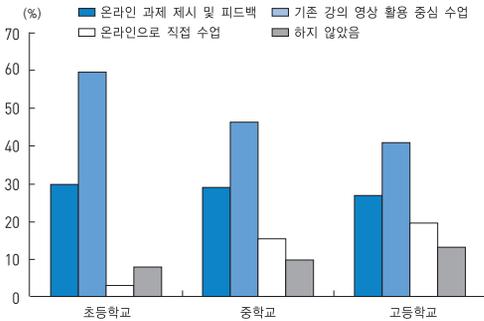
1) 각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조 사 명	온라인 학급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조 사 기 관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
조 사 대 상	경기도 관내 초·중·고 교원 및 학생	경기도 관내 초·중·고 교원, 학부모, 학생
사	30,571명	28,445명
레	-	433,591명
수	286,550명	200,085명
조 사 기 간	2020.4.19 ~ 4.24	2020.6.11 ~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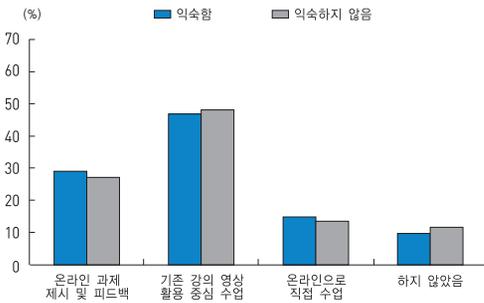


[그림 IV-12] 경기도 초·중·고의 온라인 개학 이전 원격 수업 방식, 2020. 4

1) 학교급별



2) 교사의 정보통신매체 익숙도별



주: 1) 원격수업 방식은 '선생님은 (온라인으로) 개학하기 전에 주로 어떤 형태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임.

2) 정보통신매체 익숙도는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라고 생각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익숙함',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익숙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음.

3) 고등학교는 일반교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경기도교육연구원, 「온라인 학급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원자료, 2020. 4.

13.0%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높아졌다.

한편 교사가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지는 원격 수업 방식의 선택에 미세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한 수업은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46.6%)보다 정보통신매체에 미숙한 교사(48.2%)가 좀 더 선호했다.

반면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는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29.0% vs 26.9%)이나 온라인 직접 수업(14.8% vs 13.3%)에서 정보통신매체에 미숙한 교사보다 다소 우위를 보였다. 원격수업을 아예 하지 않은 사례도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9.6%)보다는 정보통신매체에 미숙한 교사(11.6%)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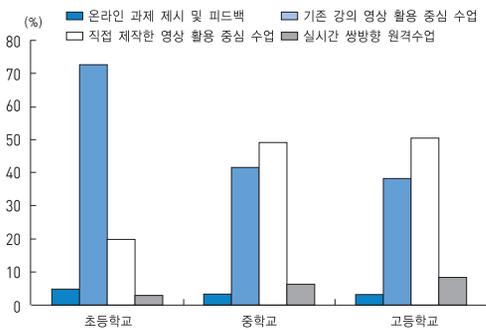
어떤 형태로든 개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공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개학 이전과 달리 원격수업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격수업을 아예 하지 않는 사례가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그림 IV-13]에는 온라인 개학 후 이루어진 원격수업의 대강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기존 강의 영상 활용 수업(72.7%)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접 제작한 영상 활용 수업(19.7%),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4.9%),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직접 제작한 영상 활용 수업(49.0%)이 기존 강의 영상 활용 수업(41.5%)보다 많았으며 큰 격차를 두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6.3%),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3.2%)이 뒤를 따랐다. 고등학교에서도 직접 제작한 영상 활용 수업(50.3%), 기존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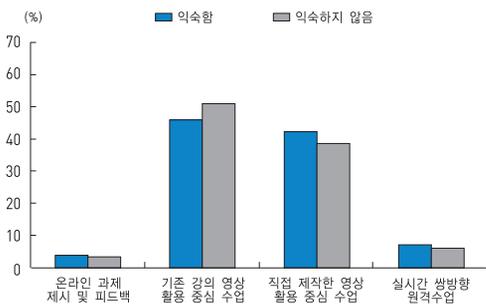
영상 활용 수업(38.3%),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8.3%),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3.1%) 순으로 원격수업 방식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기존 강의 영상 활용 수업의 선택은 감소하고, 직접 제작한 영상 활용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의 선택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13] 경기도 초·중·고의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 방식, 2020. 4

1) 학교급별



2) 교사의 정보통신매체 익숙도별



주: 1) 원격수업 방식은 "온라인으로 개학한 후에 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수업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임.  
 2) 정보통신매체 익숙도는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익숙함',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익숙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음.  
 3)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경기도교육연구원, 「온라인 학급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원자료, 202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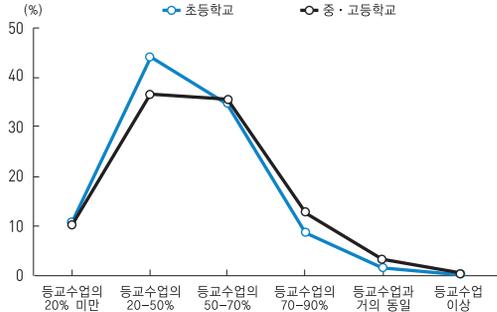
한편 교사가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지는 온라인 개학 이후의 원격수업 방식 선택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한 수업은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46.1%)보다 정보통신매체에 미숙한 교사(51.2%)에 의해 선호됐다. 반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은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42.4%)가 정보통신매체에 미숙한 교사(38.9%)보다 더 많이 선택했다. 정보통신매체 익숙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이나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방식 수업을 선택한 교사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

원격수업의 효과

원격수업의 효과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인 편인데, 중·고등학교 교사보다는 초등학교 교사가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IV-14]에 제시했듯이 전체 초등학교 교사 가운데 10.6%는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등교수업의 20% 미만으로 평가했고, 43.9%의 교사는 원격수업의 효과를 등교수업의 20~50%로 보았다. 아울러 초등학교 교사의 34.8%는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의 50~70%라고 평가했고, 8.6%의 교사는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등교수업의 70~90%라고 응답했다.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과 거의 동일하거나 더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초등학교 교사의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그림 IV-14] 전국 초·중·고 교사의 원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 2020



주: 1)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함.  
 2) 원격수업의 효과는 "선생님께서도 등교수업과 비교했을 때 원격수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OVID-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원격 수업 실태 및 개선 방안 탐색」, 2020.

한편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등교수업의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6%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와 비율이 같았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36.7%는 원격수업의 효과를 등교수업의 20-50%로 평가했고, 35.4%의 교사는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의 50-70%라고 보았으며, 12.6%의 교사는 원격수업의 효과를 등교수업의 70-90%라고 응답했다.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과 거의 동일하거나 더 효과가 크다고 밝힌 중·고등학교 교사의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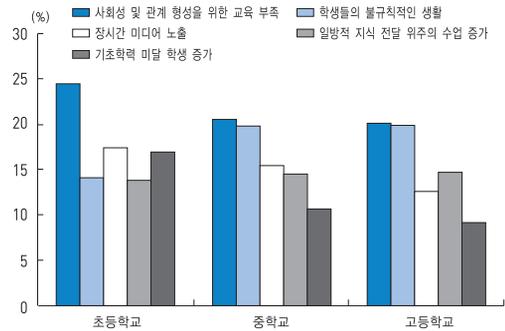
### 원격수업의 문제점

전면적인 원격수업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생소한 경험이다. 누구나 일정 정도 시행

착오가 불가피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문제점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체감된 문제점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이나 역할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림 IV-15]에는 각 학교급별 교사가 느낀 원격수업의 주된 문제점이 나타나 있다. 교사가 느낀 원격수업의 문제점은 학교급에 따라 다소 달랐다. 초등학교 교사는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24.5%)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그림 IV-15] 경기도 초·중·고 교사가 느끼는 원격수업 문제점, 2020. 6



주: 1) 교사가 느낀 원격수업의 문제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 골라주세요"라는 요청에 교사들이 아래 보기를 선택한 결과임.  
 1: 창의적 체험학습 운영 시간 부족  
 2: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  
 3: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증가  
 4: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5: 사교육 증가  
 6: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증가  
 7: 학생들의 불규칙적인 생활  
 8: 온라인 예절이나 온라인 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  
 9: 정시간 미디어 노출  
 2) 복수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은 100%를 초과함.  
 3) 전체 보기 가운데 응답률이 10% 이상인 항목만 제시하였음.  
 4) 고등학교는 일방적 교사의 응답 결과임.  
 5) 항목은 교사의 전체 응답 비중에 따라 내림차순 정렬하였음.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원자료, 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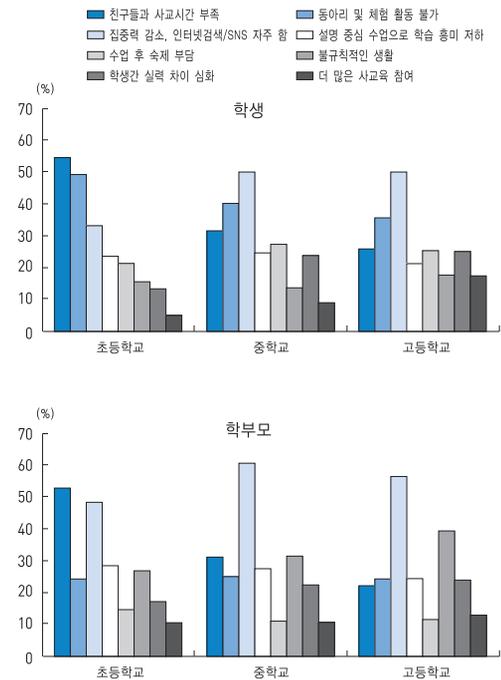
로 받아들였고, 장시간 미디어 노출(17.4%),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증가(16.8%), 학생들의 불규칙적인 생활(14.1%),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증가(13.9%) 순으로 문제점을 꼽았다.

중학교 교사도 사회적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20.5%)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지만, 학생들의 불규칙적인 생활(19.9%)도 그에 못잖은 문제점으로 보았다. 다음으로는 장시간 미디어 노출(15.4%),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증가(14.5%),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10.6%) 등을 지적했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중학교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사회적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20.1%), 학생들의 불규칙적인 생활(19.8%),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증가(14.8%), 장시간 미디어 노출(12.6%),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9.1%) 순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6]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느낀 원격수업의 문제점이 학교급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원격수업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54.5%)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49.3%)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33.0%)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23.5%) 또는 수업 이후에 과제(숙제)가 많다(21.1%)는 불평도 적지 않았다. 중학생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49.9%)를 원격수업에 임하면서 느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40.0%),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31.5%), 수업 이후에 과제(숙제)가 많다(27.2%), 설명 중

[그림 IV-16] 경기도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원격수업의 문제점, 2020. 6



주: 1) 학생과 학부모가 느낀 원격수업의 문제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모두 고르세요"라는 요청에 학생 및 학부모가 제시된 보기를 선택한 결과임.  
 2) 복수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은 100%를 초과함.  
 3) 고등학교는 일반교 학생 및 학부모의 응답 결과임.  
 4) 항목은 초등학생 항목별 응답 비중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음.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원자료, 2020. 6.



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24.4%) 순으로 문제점을 꼽았다. 고등학생이 느낀 원격 수업의 문제점은 중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50.1%)를 원격수업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보았고,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35.7%),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25.7%), 수업 이후에 과제(숙제)가 많다(25.5%),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실력 차이가 더 커진다(24.9%) 순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원격수업의 문제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학생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52.5%)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48.1%),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28.3%),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26.6%),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24.0%)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학생 학부모 중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60.5%)는 지적을 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31.4%),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30.9%),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27.3%),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24.8%),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실력 차이가 더 커진다(22.2%) 순으

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고등학생 학부모의 인식은 중학생 학부모와 대동소이했다. 원격수업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56.4%)는 점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39.0%),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24.2%),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24.0%),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실력 차이가 더 커진다(23.7%),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21.8%)는 지적도 상당했다.

### 등교 개학 후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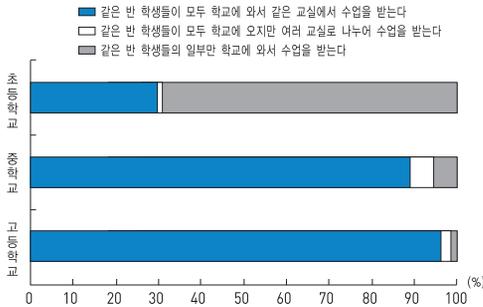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뒤에 학생과 교사가 직접 만나서 상호작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등교 개학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등교 개학 후에 학교에서 전개된 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V-17]에는 등교 개학이 이루어진 후의 수업 형태가 학교급 및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제시했다. 먼저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방식(69.0%)이 주종을 이뤘고, 같은 반 학생이 모두 학교에 와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29.9%)이 다음으로 많았다.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오지만 여러 교실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 방식(1.1%)은 극히 드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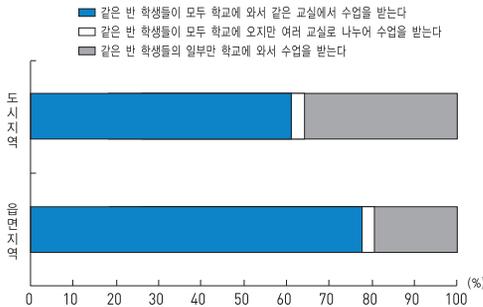


[그림 IV-17] 경기도 초·중·고의 등교 개학 후 수업 형태, 2020. 6

1) 학교급별



2) 지역별



주: 1) 등교 개학 후 수업 형태는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의 등교수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임.  
 2)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원자료, 2020. 6.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크게 대비되는 수업방식을 따랐다. 즉 중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이 모두 학교에 와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89.2%)이 압도적이었고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오지만 여러 교실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 방식(5.4%)이나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방식(5.3%)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했다. 이러한 양상은 고등학교에서 좀 더 두드러져 전체 학교의

96.5%가 같은 반 학생이 모두 학교에 와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을 선택한 반면, 다른 방식을 선택한 학교는 3.5%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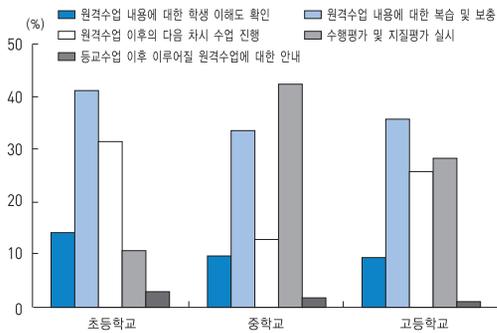
한편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는 같은 반 학생이 모두 학교에 와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78.0%)이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방식(19.5%)보다 4배 정도 많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시지역에서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61.6%)이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방식(35.7%)을 압도했다. 읍면지역이나 도시지역 모두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오지만 여러 교실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 방식을 선택한 학교는 채 3%가 되지 않았다.

등교 개학이 이루어진 후의 수업 내용도 학교급에 따라 크게 달랐다. [그림 IV-18]에 나타나 있듯이 등교 개학 후 초등학교는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및 보충(41.1%)에 역점을 두면서 원격수업 이후의 다음 차시 수업 진행(31.4%)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다. 아울러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 이해도 확인(14.1%),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10.6%), 등교수업 이후 이루어질 원격수업에 대한 안내(2.9%)도 이루어졌다.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42.3%)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및 보충(33.6%), 원격수업 이후의 다음 차시 수업 진행(12.8%),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 이해도 확인(9.7%), 등교수업 이후 이루어질 원격수업에 대한 안내(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원



격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및 보충(35.6%)에 주력하면서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28.4%)와 원격수업 이후의 다음 차시 수업 진행(25.8%)에도 힘쓰는 것이 었 보였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 이해도 확인(9.3%), 등교수업 이후 이루어질 원격수업에 대한 안내(0.9%)는 다소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그림 IV-18] 경기도 초·중·고의 등교 개학 후 수업 내용, 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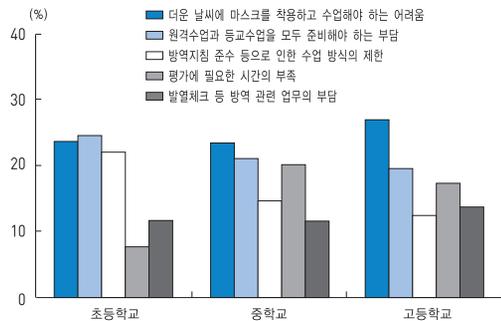
주: 1) 등교 개학 후 수업 내용은 '선생님께서서는 등교수업에서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임.  
2)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원자료, 2020. 6.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교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9]에는 교사들이 느낀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제시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24.5%),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23.7%),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인한 수업 방식의 제한(22.0%), 발열체크 등 방역 관련 업무의 부담(11.6%), 평가에 필

요한 시간의 부족(7.7%) 순으로 고충을 토로했다.

중학교 교사는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23.5%)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21.0%),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20.1%),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인한 수업방식의 제한(14.5%), 발열체크 등 방역 관련 업무의 부담(11.5%)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등학교 교사도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27.0%)을 지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19.5%),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그림 IV-19] 경기도 초·중·고 교사가 느끼는 등교수업의 어려움, 2020. 6



주: 1) 교사가 느낀 등교수업의 어려운 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두 가지 골라주세요"라는 요청에 교사들이 아래 보기를 선택한 결과임.  
1: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2: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  
3: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인한 수업 방식의 제한  
4: 발열체크 등 방역 관련 업무의 부담  
5: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  
6: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해야 하는 어려움  
2) 복수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은 100%를 초과함.  
3) 전체 보기 가운데 응답률이 10% 이상인 항목만 제시하였음.  
4)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5) 항목은 교사의 전체 응답 비중에 따라 내림차순 정렬하였음.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원자료, 2020. 6.

부족(17.3%), 발열체크 등 방역 관련 업무의 부담(13.7%),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인한 수업방식의 제한(12.4%) 순으로 어려움을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등교 개학이 5월 하순 이후에 이루어진 탓인지 모든 교육단계에서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가 많았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개혁**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별다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 주체들이 온라인 개학과 수업에 내몰리게 된 상황은 ‘강제 소환된 미래’로 묘사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사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육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생각이 <표 IV-2>에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초등학교 교사는 관계와 소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22.2%)과 개별화 수업과 학생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22.1%)에 엇비슷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가정배경이나 지역 여건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방안(20.0%)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교육격차를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 결과로 읽힌다.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17.6%)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표 IV-2> 경기도 초·중·고 교사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인식, 2020. 6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	17.6	25.1	27.2
개별화 수업과 학생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22.1	22.1	20.7
관계와 소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2.2	18.7	18.7
가정배경이나 지역 여건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방안	20.0	12.3	11.1
교사들의 정보통신매체 활용 능력 강화	7.6	10.9	10.7
교사 전문성 재정의 : 지식전달자에서 학습관리자로	5.2	5.7	6.2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교과와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5.4	5.3	5.3

주: 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교육개혁 과제는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하게 된 이번 사태는 ‘강제소환된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이 제시된 보기 중 두 가지를 선택한 결과임.  
 2)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3) 항목은 전체 응답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음.  
 출처: 경기도교육연구원, 「온라인 학습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원자료, 2020. 6.

중학교 교사는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25.1%)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을 마땅한 지침서도 없이 헤쳐 나가야 하는 고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화 수업과 학생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22.1%), 관계와 소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18.7%), 가정배경이나 지역 여건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방안(12.3%), 교사들의 정보통신매체 활용 능력 강화(10.9%) 순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중학교 교사와 문제의식이 대동소이했다.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27.2%)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적되었고, 개별화 수업과 학생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20.7%), 관계와 소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18.7%), 가정배경이나 지역 여건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방안(11.1%), 교사들의 정보통신매체 활용 능력 강화(10.7%)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사도 교사를 지식전달자에서 학습관리자로 재정의하는 것이나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교과 및 학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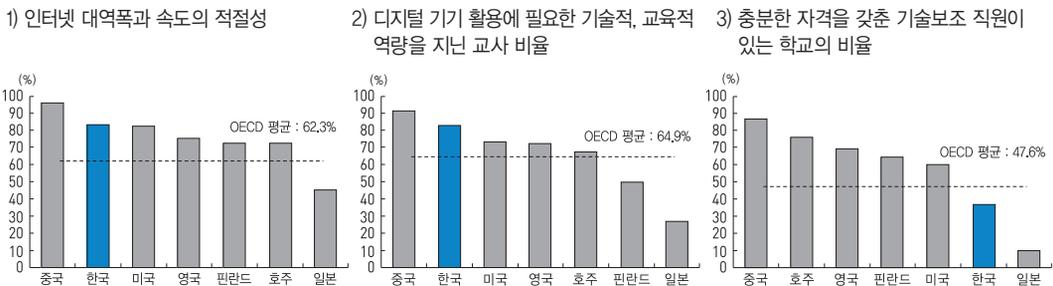
### 온라인교육 준비도: 국제비교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제한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가 훨씬 심각하고 광범하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자 학생들의 학습 손실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 온라인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온라인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어떠한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여기에서는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2018년 자료에서 산출된 주요 지표별로 한국의 온라인교육 준비 정도를 국제비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V-20]에 제시된 것처럼 한국의 경우 인터넷 대역폭이나 속도라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인다. 인터넷 대역폭이나 속도가 충분한 학교에 다닌다고 보고한 학생의 비율은 중국(95.8%)이 가장 높고, 한국(83.4%), 미국(82.4%), 영국(75.2%), 핀란드(72.9%), 호주(72.4%)도 OECD 평균(62.3%)을 상회했다. 반면

[그림 IV-20] OECD 주요 국가의 온라인교육 준비도, 2018



주: 1) 학교관리자가 항목별로 '매우 동의' 또는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비율임.

2) 중국은 베이징·상하이·장쑤성·저장성 4개 지역의 평균임.

출처: OECD, PISA 2018 Database.

일본(45.2%)은 인터넷 대역폭이나 속도의 적절성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한국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교육적 역량을 지닌 교사의 비율(83.2%)도 매우 높았다. 이 지표에서는 오직 중국(91.7%)만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반면, 일본은 27.3%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64.9%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술보조 직원이 있는 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이 지표에서 한국(36.9%)은 중국(87.0%), 호주(76.2%), 영국(69.3%), 핀란드(64.8%), 미국(60.4%)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을 나타냈는데, 일본(10.2%)만이 한국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OECD 평균은 47.6%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한국의 교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후 현장에 투입된 비율이 높지만,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교육이 대세가 되기 이전에는 이미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한 교사들이 많은 것만으로도 온라인교육을 시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교육이 전면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게 가능하도록 적절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맺음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사태를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보건위기로 규정하고 여파가 수십 년은 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한국 교육은 상당히 양호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다.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와 온라인교육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역량을 갖춘 교사들의 존재가 전대미문의 위기 극복에 주효했다.

하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갑자기 시행된 원격수업에서 많은 문제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온라인교육을 실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온라인교육을 계속하면서 교육현장에서 필요할 때 적절한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일회성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여파 자체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면 지금까지 노정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